

LG생활건강, 인삼약초연구소와 업무협약

농촌진흥청 인삼약초연구소와 LG생활건강 후 한방피부과학연구소는 6월3일 인삼약초연구소 회의실에서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삼약초연구소 최두희 소장과 한방피부과학연구소 이천구 소장은 협약에서 관련 기술·정보의 공유 및 교류, 관련기술 공동개발 및 산업화 추진, 공동(협력)연구 추진, 전문가 자문 및 인력풀 상호지원 등을 약속했다.

최두희 소장은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등 업무협력이 생명력 있는 현장연구의 실천이며 개발된 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천구 소장은 “인삼약초연구소와의 인력 및 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은 물론 한방화장품의 재료가 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와 고급화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산하의 국립연구기관으로 2007년 6월 신설된 인삼약초연구소는 인삼의 세계 명품화와 토종약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인삼, 약초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8/06/04>